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¹⁾

송혜림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요약>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된 연구로서, 연구의 목표는 첫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부인의 기대 및 참여실태의 전반적인 수준을 규명하고, 둘째,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부인의 기대와 남편의 참여실태의 수준은 가사노동항목별로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부인의 기대와 남편의 참여실태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는 남편의 가사수행능력, 남편의 성역할태도, 자녀수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여가 많을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on Husbands' Participatilon to Household-Labor in dual-earner Families

SONG, Hyerim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overall level of wives' expectation and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tasks and to analyze empirically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wives' expectation and the level of husbands' participation were on

1) 본 논문은 1999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the whole corresponding mutually
- 2) The factors which affected husbands' participation were husbands' household task performance competence, husbands' sex role attitude and the number of children
 - 3)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was correlated to wives'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I.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목표

산업사회의 특징은 사적인 생활공간과 공적인 생활공간의 분리이며, 이에 따라 가정과 직장, 가사노동과 임금노동 그리고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도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이분법적 사회문화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성은 직장, 사회, 임금노동의 주체가 되며 여성은 가정생활 그리고 가사노동의 주체가 된다. 남성과 여성은 T. Parsons가 구별하는 바와 같이 각각 도구적(수단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데, 즉 남성은 가정의 부양자로서 밖에 나가 돈을 벌어드리는 역할에 그리고 여성은 가정살림을 담당하는 역할에 특화된다. 이를 전통주의적 역할규범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정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여성상이자 모든 여성들의 원하는 모습이 현모양처인 시절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경험하고 있듯이 여성의 취업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통주의적 역할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여성이 결혼하여 꼭 가정살림만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남녀평등의식의 확산과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자아실현에 대한 요구 등이 결합되어 여성에게 가정 내 역할 외에 직업적 역할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근래에는 경기불안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이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북돋고 있다.

199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24.7%가 가정과 관계없이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며,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맞벌이가구는 10년 전보다 152만여 가구 증가된 5백12만여 가구이다 (통계청,1998). 다음 표에는 연도별로 여성의 취업율 증가 추이가 나와 있다.

<표 1> 여성의 취업율 변동추이

연도	여성취업구성비
1970	36.5 %
1980	38.2 %
1990	40.8 %
1997	41.0 %

출처 : 생활 속의 통계, 통계청, 1998

이처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정부의

산업화정책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의 경기호황의 봄을 타고 수출산업에서 저임금 연소 여성의 노동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그 원인이 된다. 셋째, 남편의 수입만으로 경제적 요구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여성의 활동시간여유가 증가된 것도 한 이유가 된다.

한편 여성취업자들의 취업지속기간에 대한 희망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여성취업자의 희망 취업지속기간 분포단위

단위 : %

분류	항목	당장 그만두다	결혼 할 때까지	자녀출산 때까지	경제여건 좋아지면	늑 어 서 할 수 없 을 때	기타	자녀학업 마칠 때 까지	전체
전 체		3.1	7.7	3.1	27.2	54.4	2.6	1.9	100.0
연령	15-24	3.3	29.4	7.7	21.0	35.3	3.3	0.0	100.0
	25-29	4.6	17.4	10.5	26.5	36.5	2.7	1.8	100.0
	30-34	4.5	2.3	2.3	37.5	48.9	2.3	2.3	100.0
	35-39	2.0	0.0	0.4	34.6	56.9	4.1	2.0	100.0
	40-54	2.3	0.0	0.0	30.8	62.3	1.7	2.0	100.0
	55-59	3.9	0.0	0.0	13.4	79.3	1.6	1.6	100.0
	60+	1.3	0.0	0.0	6.6	88.2	2.6	1.3	100.0
혼인상태	미혼	3.0	30.6	7.3	18.3	37.3	3.5	0.0	100.0
	기혼	3.1	0.0	1.7	30.3	60.2	2.3	2.5	100.0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97 : 81

그런데 이와 같이 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할 때, 취업주부들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수행하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취업주부의 경우 일정 시간 직장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은 곧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전담할 때 갖게 되는 시간갈등, 역할갈등 등의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는 취업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표 3> 취업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

자 연 구	윤복자(1975)		한경미(1991)		이기영(1994)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가사노동영역						
의생활	0.9	1.4	0.4	0.8	0.3	0.7
식생활	1.2	1.4	1.6	2.4	1.3	1.9
주생활	0.6	1.8	0.5	1.0	0.5	0.8
가족원돌보기	3.9	4.1	0.9	1.6	1.1	1.2
가정관리/구매	0.3	0.7	0.2	0.9	0.3	0.8
합계	6.9	9.4	3.6	6.7	3.5	5.4

출처 : 이기영 외, 광복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위의 표에서 보면 취업주부들은 하루의 일정 시간 취업에 종사하고도 3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게다가 휴일에는 평일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자로서의 재생산과 휴식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취업여성의 심각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다.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사부담 그리고 이중노동부담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에 장애요인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아래 표에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표4>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95)

단위 : %

요인 구분	여성의 능력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승진 등 근로여건	가사 및 육아부담	기타
전체	4.3	24.7	8.7	9.5	52.5	0.3
남성	5.0	24.5	10.8	9.1	50.3	0.3
여성	3.7	24.8	6.8	9.9	54.6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166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은 남녀 모두 가사 및 육아부담을 들고 있다. 다른 이유보다 가사 및 육아부담을 지명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계가 나타내는 의미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취업주부의 증가 라는 사회적 현상은 가정에서의 가사노동분담이라는 가정적 현상과 직결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여성이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취업영역으로 진출하는데, 이에 비하여 가정생활에서 남성의 가사분담이 같은 정도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취업주부는 이중노동부담을 안게 되며, 이는 취업주부의 개인적 복지 뿐 아니라 남성복지와 가정복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불평등한 가사분담은 결국 이제 여성의 경우 과거의 정서적 역할 뿐 아니라

도구적 역할을 병행하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 여전히 정서적 역할에 익숙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남성이 한 가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부부 간 가사노동의 분담은 취업주부의 가사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 뿐 아니라, 직장노동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는 남성의 생활과 생활시간을 가정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경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남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 기혼남성이 가정생활이나 자녀양육 등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주체적이면서도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기영 외, 1996:98). 그리고 이는 다른 가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연구들에서도 우리나라 남편들의 가사노동수행시간은 2시간이 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윤복자, 1975; 이정수, 1984; 이기영 - 1994; 최수선, 1995 재인용). 따라서 취업주부에게 있어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실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취업주부 개인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한 가정생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어떤 실태를 보이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취업주부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촉진하는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사노동의 개념

1) 가사노동의 정의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무보수의 부양활동으로서 (이기영 외, 1993), 가족원들이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노동이다. 많은 학자들이 가사노동의 개념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왔는데,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사적인 가정생활의 장에서 무보수로 가정생활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행해지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하루하루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이며, 그러나 무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가사노동이 갖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는 초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한 존재해 온 노동이라는 것이다. 그 형태와 성격은 시대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가사노동은 늘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보수의 사적 노동으로서 가사노동 역시 현대사회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노동과 대비되어 가사노동의 현대적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가사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는 사실로부터 여성의

생활조건과 삶의 양식이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가사노동 연구에 있어서는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주된 과제로 등장하는데,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별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고 가사노동의 특성에 따라 주로 누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가와 관련되어 여성형, 남성형, 공동형 과제 등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부부 간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는 것은 가사노동은 주로 주부가 담당해 오고 있으며, 주부가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분담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자체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가사노동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부들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서영숙 외, 1976 ; 문숙재, 1980), 가족원들의 가사분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편의 가사참여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결과가 많은데, 특히 가사노동영역별로 차이를 보여 식생활이나 의생활영역보다 주생활, 가족원돌보기 등의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혜림, 1988).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일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주로 집안수리나 자녀양육에 높은 참여를 보인다 (최수선, 1995).

1995년도 연구결과를 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족원돌보기에서 제일 길고 그 다음이 관리 및 구매,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의 순으로 나왔으며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20분, 토요일 49분, 일요일 1시간 48분이며 주당 평균시간은 4시간 49분으로 나왔다 (최수선, 1995).

남편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역할관념이 개방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분담율이 높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자녀가 없는 초년기와 은퇴기의 남편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며 자녀의 청소년기에 가장 적게 수행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최수선, 1995).

그 외에도 부인의 취업여부, 자녀의 연령, 남편의 시간가용정도 등이 남편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친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남편의 가사참여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맞벌이 가정에 있어 남편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맞벌이 가정에 있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부인의 기대정도는 어떠한가?
- 셋째, 맞벌이 가정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따라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1) 남편의 가사노동수행능력에 따라 가사참여정도는 어떠한가?
 - 2)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참여정도는 어떠한가?

- 3) 막내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가사참여정도는 어떠한가?
 - 4) 자녀수에 따라 가사참여정도는 어떠한가?
- 넷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정도에 따라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사노동을 의생활 영역, 주생활영역, 식생활영역, 전반적인 가정관리 그리고 가족원 돌보기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노동항목이 포함된다.

의생활영역 : 세탁, 옷손질, 다림질, 세탁물 정리

식생활영역 : 식사준비, 상차리기, 설거지, 도시락준비

주생활영역 : 청소, 집안꾸미기, 주택손질과 수리

전반적인 가정관리영역 : 구매, 공공요금 내기, 예산 세우기, 가계부 기록, 가족행사 계획

가족원 돌보기 : 성인가족 돌보기, 자녀 돌보기

이러한 가사노동영역에 따라 남편의 가사참여정도와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작성된 연구도구는 질문지이며 1999년 10월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자녀를 둔 취업주부의 남편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3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290부를 최종적인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사용된 통계방법은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이다.

조사척도에 있어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개별적인 가사노동항목에 대하여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에서부터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한다 까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참여가 많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부인의 기대정도 역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가사노동항목에 대해 남편의 가사참여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부터 전적으로 기대한다 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수행을 더 많이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수행능력은 위와 동일한 가사노동항목에 대하여 아주 못한다. 에서부터 매우 잘한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수행능력이 높은 것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가정에서의 권력,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등을 물어보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영역과 가사노동 관련 영역으로 구별하여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	집단	빈도(%)	요인	집단	빈도(%)
부인연령	20대	96(32.9)	남편연령	20대	49(16.3)
	30대	114(39.4)		30대	137(47.6)
	40대	54(18.7)		40대	54(18.8)
	50대+	26(9.0)		50대+	50*(17.4)
부인학력	중졸이하	13(4.5)	남편학력	중졸이하	4(1.4)
	고졸	113(38.7)		고졸	67(22.3)
	초급대졸이상	164(56.8)		초급대졸이상	219(67.6)
부인소득	100만원미만	189(65.2)	남편소득	100만원미만	104(35.5)
	~199만원	79(27.2)		~199만원	139(48.0)
	200만원+	22(7.6)		200만원+	47(16.5)
막내자녀연령	2세이하	68(23.4)	자녀수	1명	124(42.8)
	~7세	75(25.9)		2명	145(50.0)
	초등학생	78(26.9)		3명+	21(7.2)
	중학생	55(19.0)			
	고등학생+	14(4.8)			

위의 표를 보면 남편, 부인 모두 30대가 가장 많고, 학력 역시 부인 남편 모두 초급대졸 이상이 가장 많다. 소득에 있어서 부인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 절반을 넘는 반면 남편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가 분포가 더 많다. 막내자녀 연령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자녀수는 평균 1.6명이다.

2. 연구결과

1)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정도와 부인의 기대정도

먼저 맞벌이 가정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원돌보기>주생활>전반적인 가정관리>식생활>의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6>가사노동영역별 남편의 가사참여도, 부인의 기대정도

가사노동영역	점수		가사노동영역	점수	
	부인의 기대 *	남편의 수행**		부인의 기대	남편의 수행
가족원돌보기			주생활영역		
성인가족원 돌보기	2.78	2.56	청소	3.53	3.21
자녀 식사 보조	3.87	3.68	집안꾸미기	2.50	2.49
자녀 숙제 봐주기	3.63	3.51	주택손질과 수리	3.89	3.80
어린자녀 신체적돌보기	3.76	3.21	평균	3.30	3.17
평균	3.51	3.25			
전반적인 가정관리			식생활영역		
구매	3.53	3.20	식사준비	2.10	1.99
공공요금내기	2.43	2.20	상차리기	2.67	2.34
예산 세우기	3.10	3.01	설거지	2.56	2.31
가계부 기록	2.67	2.32	도시락준비	1.89	1.79
가족행사 계획	3.23	2.98	평균	2.31	2.11
평균	2.99	2.74			
의생활영역					
세탁	2.21	2.19			
옷손질	1.89	1.70			
다림질	2.30	2.21			
세탁물정리	1.56	1.40			
평균	1.99	1.86			

- * 1점 : 전혀 안 한다 2점 : 조금 한다 3점 : 보통이다
4점 : 많이 하는 편이다 5점 :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 ** 1점 : 전혀 기대 안 한다 2점 : 조금 기대한다 3점 : 보통이다
4점 : 많이 기대하는 편이다 5점 : 전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한다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부인의 기대 역시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부인의 기대가 더 높은 점수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사분담에 있어 남편의 수행은 부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부인의 기대 그리고 실제 남편들의 참여가 주로 여성형 과제로 여겨지는 음식만들기, 설거지 그리고 세탁, 다림질 등의 영역에서보다 문단속, 주택손질 등 주생활영역 그리고 관리영역에서 더 높다는 연구결과(송혜림,1988)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요인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정도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요인에 따라 남편의 가사참여정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부인의 기대정도에 따라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어떻게 달라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한 결과, 부인의 기대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부인의 기대가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

며, 가정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고려할 때 남편의 가사참여라는 결과에 대하여 부인의 기대가 동기요소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표7> 부인의 기대에 따른 남편의 가사참여도

요인	범주	빈도	남편의 가사참여점수평균	F값과 유의도
부인의 기대정도	기대가 높은 집단	96	3.23	52.72***
	기대가 중간인 집단	102	2.56	
	기대가 낮은 집단	92	2.01	

*** p<.001

다음으로 남편의 가사노동수행능력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정도 역시 차이가 있어, 가사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사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표8> 남편의 가사수행능력에 따른 남편의 가사참여도

요인	범주	빈도	남편의 가사참여점수평균	F값과 유의도
남편의 가사수행 능력	높음	85	2.78	8.45***
	중간	107	2.43	
	낮음	98	1.98	

***p<.001

다른 연구에서도 자신의 즐기는 일 혹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수행의 질과 가사에 대한 책임감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Wheeler/Arvey,198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정도를 보면,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특성을 갖을수록 가사참여정도는 높고, 보수적일수록 낮다.

<표9>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남편의 가사참여도

요인	범주	빈도	남편의 가사참여점수평균	F값과 유의도
남편의 성역할태도	근대적	89	3.21	4.30*
	중간	111	2.78	
	보수적	90	2.54	

*p<.05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개방적 태도와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감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에 있어서 성역할태도는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막내자녀연령에 따라서는 남편의 가사참여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이는 다음 <표10>에 나와있다.

<표10> 막내자녀연령에 따른 남편의 가사참여도

요인	범주	빈도	남편의 가사참여점수평균	F값과 유의도
막내자녀 연령	2세 미만	68	2.78	1.83
	~ 7세	75	2.40	
	초등학생	78	2.61	
	중학생	55	2.10	
	고등학생	14	2.09	

그러나 자녀수에 따라서는 남편의 가사참여정도가 차이나는데, 자녀수가 1명일 때보다 2명일 때 남편의 가사참여는 더 많으며, 3명 이상일 때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는 3명 이상일 경우 첫째나 둘째 자녀가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다른 가족원이나 외부의 도움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의 도움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다.

<표11> 자녀수에 따른 남편의 가사참여도

요인	범주	빈도	남편의 가사참여점수평균	F값과 유의도
자녀수	1명	124	2.83	4.90***
	2명	145	3.13	
	3명 이상	21	2.56	

***p<.001

3) 남편의 가사참여정도에 따른 부인의 생활만족도

남편의 가사참여정도에 따라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차이나는가를 검증한 결과,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편의 가사참여가 높을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도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가정살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부들에 있어 그들의 생활의 질과 복지감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특별히 취업주부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결과이다.

<표12> 남편의 가사참여도에 따른 부인의 생활만족도

요인	범주	빈도	부인의 생활만족점수평균	F값과 유의도
남편의 가사참여도	높음	89	3.56	11.07***
	중간	105	2.78	
	낮음	96	2.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점점 증가하는 취업주부의 이중역할부담에 주목하여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남편의 가사참여도에 따라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규명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결과를 보면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은 가사노동 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서 가족원돌보기 영역에 대한 참여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주생활영역, 전반적인 가정관리, 식생활 그리고 의생활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모든 영역에서 부인의 기대보다 낮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인의 기대정도, 남편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남편의 성역할태도, 자녀수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기대가 높을수록, 남편 자신의 가사노동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2명일 때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취업주부가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부담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취업주부의 정서적 복지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데, 현재 가사노동의 기계화나 사회화 그리고 시설양육을 통한 자녀교육역할의 위임 등이 그러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가사노동을 위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건이 허락하여야 하는데, 많은 취업주부의 취업동기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정 내에서 가족원들 간 가사노동분담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미치는 변수 중에서 남편의 가사노동능력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보다 가까이 접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경험 그리고 그 능력을 높여가는 인식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매우 기술적이고 교육과 상관없이 없는 사소한 일로 여겨지지만, 가사노동은 가정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노동이며 전반적인 가정관리나 자녀양육 및 교육처럼 고도의 능력과 관리능력이 필요한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사노동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인의 생활만족도 차원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은 현실적으로 주부의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적 차원에서 개별가정의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개입도 필요하다.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실제 제도로써 기능하여야 하며, 남편의 가사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직장문화 자체도 변화되어야 한다. 조직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남성의 경우 귀가하여 가사를 분담할 수 있는 여

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직장노동부담의 경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외숙 외(1986).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5.
- 송명숙(1992). 취업주부가족의 성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부인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 외(1993).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영향과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56-66.
- 이기영 외(1996). 도시 남성근로자의 생활시간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97-112.
- 이기영 외(1996). 광복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31-145.
-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8). 생활속의 통계.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 Nichols S.Y & Metzner E.J.(1978).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85-97.
-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 Wheeler C.L. & Arvey R.D. (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ERJ 10-1.